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소외 양상 연구

양 윤 모 (극동대)

차 례

1. 서론
2. 소외의 개념
3. 정치적 정체성의 괴리와 소외
4. 체제 진입의 실패와 소외
5. 자기 세계로 도피와 소외
6. 결론

1. 서론

1960년대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치적 성취와 좌절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게 하였다. 또 경제 개발이 시작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농업 중심체제에서 공업 중심 체제로 변화하는 시기였으며 이는 19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심화 속에서 많은 모순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기반을 형성한다. 정치적 의식 각성과 좌절은 그 후 반독재 투쟁과 민주주의 운동으로 1980년대까지 이어져 왔으며, 공업 중심 체제로의 경제 변화는 현재까지도 한국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1960년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는 4.19혁명으로 의식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보편적 근대성을 획득한 것에 이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는 보편체계에 편입된 시기였다. 4.19를 좌절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5.16 군사정변으로 태동한 박정희 정권은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는 공업 중심 체제로 산업의 구도를 변경시켰다. 해방이후 남한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고, 공업 생산은 소비재 생산 위주의 경공업 중심이었으며 소규모 생산에 그쳤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공업 중심의 산업체제로 개편되었다. 결국 4.19에 의해 획득한 정치적 근대성을 부정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경제적으로는 보편적 근대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공업 지역으로 젊은 인력들이 이주해감으로써 농촌의 인력부족과 황폐화, 도시의 팽창과 빈민의 문제, 소외의 문제, 노동자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적 가치와 삶의 양식이 파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문학은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근대적 삶의 양식과 근대의 문제에 대해 문학이 반응하였다는 점에서 1960년대의 문학은 한국 사회의 근대 문제와 한국 문학의 근대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소설은 이미 그 상처가 내면화되고 자유에 대한 억압의 상황에서 자유의 문제와 산업화에 따른 개인의 자각과 소외의 문제가 드러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1970년대의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앞두고 서서히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하는 문제들이 시작되는 시기가 1960년대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자본주의 및 산업화의 문제가 문학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기 때문에 1970년대 문학의 성과를 1960년대 문학보다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1960년대 문학은 1950년대의 전후 문학과 1970년대의 산업화 시대 문학을 연결하는 가교에 불과한 과도기적 문학에 불과하다. 그러나 1960년대 문학은 문학사적 연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문학과 이후 시기의 문학과 차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19 혁명을 통해 고양된 의식의 각성은 한국 사회가 후진적 정치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적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재적 동력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문학적으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각성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자아, 개인에 대한 각성은 결국 조직, 사회, 국가 속에서 개인의 왜소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외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의 시대적 특징과 당대의 문학적 특성을 통해 1960년대 문학이 4.19 혁명으로 고양된 자아 각성 양상과 좌절이 개인의 삶을 소외로 이끌어 갔으며 근대적 개인의 의식 각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1960년대 소설가 중에서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가로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지식인의 정치적 소외, 자본주의 체제 진입의 실패로 인한 소외, 자기 세계를 통한 개인의 소외를 보여주고 있다.

2. 소외의 개념과 현상

소외란 영어의 alienation, 불어의 alienation, 독일어의 Entfremdung을 우리말로 옮겨 놓은 것이다. 소외의 라틴어 어원은 alienation라는 명사인데 이는 ‘남의 것으로 만든다’, ‘제거한다’의 뜻이 있는 동사 alienare에서 유래했다. 또한 alienare는 ‘남에게 속한다’라는 뜻을 가진 alienus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alienus는 최종적으로 alius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alius는 ‘남의’라는 형용사나 ‘다른 것’이라는 명사의 뜻을 지니고 있다.¹⁾

소외라는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헤겔에 의해서이다. 헤겔은 그의 『정신현상학』에서 소외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주체(=정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주체에 대립하는 것(=대상)이 되고, 드디어는 주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을 주체의 소외라고 하였다.²⁾

절대정신으로부터 따돌려진 것으로 개인의 의식을 바라보는 헤겔과 달리 포이에르바하는 오히려 종교가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따돌려진 것이라 주장한다. 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상을 대상화한 것인데, 대상화된 이상에 자기를 얽어매 인간이 스스로 구속된 것이라고 한다. 즉 따돌려진 현실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상을 절대화하고, 사람의 생활

1) Richard Schacht, 『Alienation』, Doubleday & Company, Inc, 1971, p. 9.

한완상,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문학사상』, 1976, 4, p.323 참조

2) 정명오, 「현대사회와 소외의 문제」, 『인하 18』, 1982, 2, p.179.

은 그에 구속되어, 더욱 따돌려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³⁾

마르크스는 소외가 인간존재에 내재적이라는 헤겔의 견해를 거부하고, 또 소외가 종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포이에르바하의 부분적인 해석에도 반대한다. 그는 소외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소외된 노동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다. 그는 근대사회에서의 노동은 노동자의 외부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인간의 자발성과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과 같은 동물적 기능에만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외된 노동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또 그 자신, 그 자신의 실질적 기능, 그의 생활 활동으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마침내는 인간은 그 類的 本質(Gattungs wesen)로부터 소외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類的 本質로부터의 소외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생산물이나 이웃으로부터의 소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⁴⁾

프랑크푸르트학파를 계승한 프롬은 ‘자본주의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 문제는 소외 현상이다’라고 단정한다. 그는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낫선 사람인 양 경험하는 경험 양식이다. 이를테면 소외된 인간은 그 자신으로부터 소원해진 나머지 스스로를 자기 세계의 중심, 자기 행동의 창출자로 느끼지 않고 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그의 주인이 되어 그는 이 주인을 순종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에 이른다. 소외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접촉이 끊어져 있듯이 자기 자신과도 접촉이 단절되어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마치 사물을 대하듯이 대하게 된다.’고 소외에 대해 규정한다. 프롬은 소외를 ‘자기소외’로 규정하여 자아를 완전히 상실한 정신이상자를 ‘절대적으로 소외된 인격’으로 해석했다.⁵⁾

결국 소외는 근대 및 현대의 특징이며 자아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될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리잡아가고 정치적 자각을 포함하여 개인의 문제가 대두된 196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소외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정치적 정체성의 상실과 소외 양상, 자본주의 체제 진입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외의 양상, 체제의 강고함으로 인해 자기세계로 도피해가는 소외의 양상을 각각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의 소설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정치적 정체성의 괴리와 소외

최인훈의 『회색인』에서는 현실 정치 상황과 정치적 정체성이 괴리되어 나타난 소외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회색인』의 독고준은 유년시절에 정치적 정체성의 괴리로 인한 소외현상을 경험하였다. 유년기에 겪은 북한 공산 정권의 체험은 정체성의 혼란과 소외의 연속이었다. 일본의 패망으로 북한 지역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된 후, 독고준의 아버지는 봉건 지주로 몰리자 가족들을 남겨 둔 채 월남하였다. 누나와 약혼한 현호성도 봉건계급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학병탈출을 내세웠지만 그 행위가 ‘봉건 계급과 일본 제국주의가 야합한 증거’라는 비난을 받자

3) 박승위, 「‘따돌려진 삶’의 극복은 도덕성 기초 위에서」, 『광장』, 1981, 11.

4) 정문길, 「현대사회와 소외의 문제」, 『승전』, 1977, 2, p.76 참조

5) 신오현, 「소외이론의 구조와 유형」, 정문길 편,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 pp.37-38.

누나를 남겨둔 채 월남한다. 결국 일본의 패망 이후 북한의 공산 정권 치하에서 독고준의 가족은 가장을 상실한 채 남한의 방송을 몰래 듣는 ‘망명 가족’의 처지가 되었다. 이는 스스로 소외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범하면서도 암전한 소년이었던 독고준은 학교에서도 체제의 변화로 인한 혼란을 실감하였다. 역사 시간에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계급 투쟁의 역사’만이 진정한 역사라고 수정받아야 했다. 기존에 받았던 교육을 부정당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학습하면서 겪은 혼란이 그가 체험한 혼란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가 학교에서 겪었던 더 심한 혼란은 소년단 학급 총회에서 반동 부르주아라는 고발을 당하고 자아 비판을 강요받은 일이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 것은 그날 저녁에 일어난 소년단 학급 총회였다. 학급 소년단 분단장은 느닷없이 준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독고준 동무는, 평소에 비열성적이며 낙후한 사업태도를 가지고 일해왔는데, 오늘 역사 시간에는 부르조아적인 말을 하여 역사의 참다운 정의를 알지 못하면서 과오를 범했습니다. 자아 비판을 요구합니다.”

분단장은 종이에 적은 것을 읽고 있었다. 소년단 지도원이 적어준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날 준은 근 한시간이나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 후 심심치 않게 계속됐다. 그는 점점 더 망명자가 되었다.⁶⁾

이후에도 독고준은 작문 숙제로 인해 내무서원과도 같은 소년단 지도원 선생의 질문에 공포를 느끼며 자신의 집안 사정을 솔직히 대답하고 만다. 독고준이 반동 부르주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지도원 선생은 그 후에도 학급의 소년단 ‘동무’들을 시켜 그를 비판대에 세우곤 하였다. 처음에 호감을 가졌던 국어 선생은 어느덧 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독고준의 학교 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독고준은 ‘책 속으로의 망명’을 선택하는 소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다고 독고준이 국군에게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독고준은 북으로 진격하여 W시를 통과하는 남한의 국군을 접한 후 또 다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그들로부터도 소외를 느낀다. 트럭을 타고 가는 남한의 국군 병사들이 부르는 군가에서 독고준은 이질감을 느끼고 소외를 경험한다. 또한 지계를 지고 가는 농부에게 사과를 던지며 장난하는 국군들의 모습에서 그의 소외감은 극에 달한다.

여기서 유년의 독고준이 겪었던 정치적 혼란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비록 정신적 망명 상태였지만 남한 군인들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국군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괴리감이 그를 소외되게 만들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이 철수할 때 W시의 부두에 누나를 남겨 둔 채 혼자 월남한 독고준은 다시 만난 아버지와 현호성을 통해 남한 체제의 변화와 실상을 파악한다. 월남 후 부산에서 다시 만난 아버지는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해져버린 생활자’에 불과한 낙오자일 뿐이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낙오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결국 아버지와 더불어 독고준은 남한 체제에서 소외되고 만다. 얼마 후 아버지가 사망한 후 혈혈단신이 된 독고준은

6) 최인훈, 『회색인』, (문학과 지성사, 1977, 재판, 1991), p.25.

혼자라는 사실과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기력하다는 점에서 소외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북한에서 유년시절에 겪었던 정체성의 상실에서 기인한 소외는 남한에 와서도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 독고준과 그의 친구들은 상해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애국 지사의 묘소를 방문할 때 느낄 수 있는 엄숙함과 숙연함이 아니라 반정부 운동을 몰래 하는 것과 같은 스릴로 표현한다. 그들이 김구 주석 묘소를 참배하면서 ‘스릴’을 느끼는 것은 김구가 이승만의 정적(政敵)이었다는 점과 이승만 정권의 문제점들을 깨닫고 거부감을 갖기 때문이다. 김학의 일행인 오승은은 김구 주석 묘소 참배를 “대통령이 지나가는 연도에서 손뼉을 치는 것과 꼭 반대의 일을 하고 있던 말이야. 우리는, 지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독립 지사의 묘소를 참배하는 행위가 반정부 행위로 여겨져 스릴을 느끼게 되는 역설적 상황은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이 현실의 정치 상황인 이승만 정권의 정체성과 괴리되기 때문이며 이들은 반대편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소외를 선택한다.

혁명. 피. 역사. 정치. 자유. 그런 낱말들이 그들의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장미꽃. 저녁 노을. 사랑. 모험. 등산 등과 같은 말과 얼마나 다른지는 의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무거운 낱말들--- 혁명. 피. 역사. 정치. 자유와 같은 사실의 책임을 질 만한 실제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언어뿐이었다. ‘사실’에 영향을 주고, ‘밖’을 움직이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제 그림자를 쫓고 제 목소리가 되돌아온 메아리를 되짚는 수인(囚人)의 언어 속에 살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현실은 더욱 멀어 보였다. 언어와 현실 사이에 가로놓인 골짜기를 뛰어 넘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 골짜기를 이을 수 있는 다리를 놓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초라한 ‘아이들’이었다.⁷⁾

현실의 정치 상황과 정치적 정체성의 괴리로 인한 혼란은 현실을 변화시키려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위축되고 소외될 뿐이다.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던 상황을 불만족스럽게 여긴 독고준의 친구 김학은 동인지 『간헐세대』에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 후 정권을 인수했다면 정치적 혼란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발표한다.

김학은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 후 정권을 인수했다면 친일파의 단죄와 일제 잔재의 청산 등 민족사의 정통성이 확립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학은 친일파의 처벌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애국지사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졌다면, 국가와 사회의 윤리 의식이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민족 정기도 회복되었으리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김학은 이 글의 말미에서 자신의 생각과 달리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부질없는 가정을 하다보니 슬그머니 비감해진다. 나는 여기저기 다니며 물어보았으나 한결같은 얘기는 몸 성히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뿐이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학생이구나.....’⁸⁾

7) 최인훈, 『회색인』, p.83.

결국 국가적 정체성의 혼란 및 상실이 개인의 정치적 정체성의 괴리로 이어져 소외되고 만다. 하지만 김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혁명을 꿈꾸지만 독고준은 그 방법마저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실 정치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길을 선택한다.

“자네가 말하는 혁명이란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당파를 만들고 폭력으로 정권을 인수한다는 것이겠지?”

학은 웃으며,

“그게 혁명이잖아?”

“그러니까 싫어. 이것 봐. 혁명은 새 신화를 실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에 민주주의를 대신할 새 신화란 걸 생각할 수 있나? 없단 말야. 그렇다면 그건 혁명이 아니라 강제적인 정권 교체, 즉 사람을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난 새 신앙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교체는 위험스런 일이라고 봐. 이 자네 글에 있는 상황과는 달라. 자네 말처럼 상해의 권위를 장한다는 신화적인 후광이 있는 인물이나 집단인 경우라면 몰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 어디 그런 인물이나 집단이 남아있나? 다 잡아먹었거나 명이 들고 말지 않았나? 그렇다고 난 현상을 바꾸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야.”

학은 준의 낯빛을 살피면서,

“그건?”

“어느 날 이천만(물론 국민학교 이하는 빼고) 민중이 홀연 인간적 모욕을 실감하고 일제히 동시에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때 나도 그 대열 속에 있을거야.”

“지독하군.”⁹⁾

결국 독고준은 현재의 현실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변화시키는 혁명파도 거리를 둔다. 독고준은 국민 모두가 현 상황을 부정할 때에만 그 대열에 함께하겠다는 논리로 김학의 혁명 이론을 거부하면서 양쪽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외를 넘어 고립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 체제 진입의 실패와 소외

이청준은 전후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한다. 전후의 젊은이들은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다. 지역차별의 문제로 인해 취직이 되지 않기도 하며, 전통적 기예는 천대받고 소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굴레」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로 취직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하는 젊은이들의 좌절을 통해 체제 진입의 실패로 인한 소외의 양상을 보여준다.

X 지방 출신은 철저히 배격한다는 소문이 있는 M일보사였다. 인사 관리에 <비공식>이 심하다는 M일보였다. 잊어두자. 잊어버리자. 처음부터 내가 뽑히려는 기대는

8) 최인훈, 『회색인』, p. 290.

9) 최인훈, 『회색인』, pp. 292-293.

찾지 않았던 일인데. 더욱이 필기 시험 합격자가 백 명에 가까운 숫자이고 보면 이것도 보통을 넘는 경쟁이다. 하지만 그 신의 <가호>가 이번과 같이 엉뚱하게 또 나에게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끊질기게 뇌수로 엉겨들었다.¹⁰⁾

하지만 이런 기대는 M일보사 기획실에 근무하는 선배를 찾아간 후 깨지게 된다. 선배는 왜 시험을 치렀느냐며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다.

“섭섭한 얘기지만 안 될걸로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불문을 같은 게 있지. X 지방 출신과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로 제외되고 있어. 뭐 그런 사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야.”

소문대로였다. 하지만 편모 사유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없으면 취직을 안 해도 좋은 무슨 보장이라도 있답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순종의 미덕이 없고, 역심(逆心)이 많다더군. 사고를 큼직하게 저지르는 측은 대개 그 쪽이고 한마디로 부리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¹¹⁾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기 보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소외되도록 만들고, 이러한 처사가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역심을 품도록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결국 그는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의 질문이 가식적이며 요식 행위라 생각한다. 어차피 내규로 정해 놓았으면서 경쟁자와 자신들의 신문이 어떻게 다른 지, ‘우리 사로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지’를 묻는다. 그는 면접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에게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자들 역시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비굴한 웃음을 웃게 하고, 고분고분 대답을 시켜보자는 것이겠지.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는, 적어도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리라는 것을 뻔히 짐작하고 있을 이들이 그 결정의 내용은 정반대가 되는 결과를 내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사기였다.¹²⁾

취직을 통해 사회 체제에 진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패기있는 젊은이들을 기존의 질서에 순응시켜 조직의 일부분으로 소외시키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는 X도 출신에 편모사유로 불합격 될 것이 확실하자 면접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취직 시험을 통해 젊은이들을 조직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조직의 체제에서 소외시키는 행태에 대해 일갈한다.

“대학을 갓 나와 철없이 패기에 차서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녀석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여다가 콧대를 꺾어 놓을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령 면접 시험관 같은 것 말입니다. 이

10) 이청준, 『굴레』, 『별을 보여드립니다』, (일지사, 1971), p.86.

11) 이청준, 『굴레』, 같은 책, pp. 86-87.

12) 이청준, 『굴레』, 같은 책, p.92.

놈들에겐 우선 합격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게 한 다음, 풀이 죽어서 애원하는 눈초리를 하고 제 앞에서 있게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 맛을 보여주면 젊은 녀석들 거리에서 철없이 굴지도 않고 세상은 좀더 주무르기가 편하게 될 테지요---.”¹³⁾

결국 취직이 안되어 사회 체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도 소외이지만, 취직하여 사회 체제에 진입해도 소외는 숙명처럼 다가 올 뿐이다. 결국 ‘굴레’는 X도 출신과 편모사유가 취직 불가사유의 굴레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굴레이기도 한 것이다.

젊은이의 취직이 자본주의 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소외라면, 전통적 기예도 근대화 화로 표상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외를 맞는다.¹⁴⁾

「줄」, 「과녁」, 「매잡이」 등의 작품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 기예가 주류예술로부터 소외되고 소멸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자본주의화라고 할 수 있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 기예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줄광대(「줄」), 궁사(「과녁」), 매사냥꾼(「매잡이」) 등은 근대 이전의 전통적 사회 체제에서 신분적으로 높은 대우받지 못했지만 고난도의 수련 과정과 장인이라는 자존심은 인정받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더욱 하락하였고, 자존심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장인으로서 스스로 예술가라 생각했던 정체성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줄타는 광대는 고난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공연 때마다 목숨을 건 곡예를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위해 목숨을 건 묘기를 강요받기도 한다. 궁사는 활터의 과녁 옆에서 목숨을 걸고 화살의 행방을 알려주는 고전동부터 시작해 궁사의 경지에 올라섰지만 세인들의 멸시와 비우호적인 시선 속에서 딸의 혼처가 가로막힌 현실에 접하게 된다. 매잡이 또한 겨울 한 철의 사냥을 위해 농사철에도 매를 길들이기 위해 농사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서 농촌에서 기능인으로 존중받지는 못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의 세속화 현상에서 이들은 장인이 아니라 돈벌이와 관련된 기능인으로 취급받지만 이들은 세대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소외되고 결국 자신의 존재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

허 노인이 줄을 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천정 포장을 걷어 젖히고, 넓은 밤 하늘을 배경으로 허 노인은 흰 옷에 조명을 받으며 줄을 건너는 것이었는데, 발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듯 조용히 줄을 건너가는 노인의 모습은 유령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땅 위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줄을 타는 허 노인이었지만 줄에서 내려오면 그의 온 몸은 언제나 땀에 흠뻑 젖어 있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단장은 그런 허 노인의 줄타기를 몹시도 싫어했다.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놀라게 해 주란 말야. 재주를 좀 부려, 재주를.”

단장은 허 노인을 매번 나무랐다. 허 노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대꾸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러다간 단장 앞을 힘없이 물러나오곤 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허 노인

13) 이청준, 「굴레」, 같은 책, p.93.

14) 전통적 기예의 소외 및 소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줄고, 「근대화와 전통적 기예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5, 2002 참조

은 여전히 전처럼 줄을 타는 것이었다.¹⁵⁾

허노인은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 줄을 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장은 그의 노력과 정성스런 태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흥행에만 관심을 두고 허노인을 다그친다. 하지만 허노인은 장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단장의 지시를 거부한다. 다음날에도 여전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이는 자신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지만 단장과 관객들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이다. 결국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허노인은 아들 ‘허운’에게 줄타기를 전수한 후 줄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예술가 또는 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허노인은 소외되어 자살하는 것이다. 허노인의 아들 허운은 아버지가 겪은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사랑하는 여인의 배신으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자살하고 만다.

『과녁』에서도 전통적 가치가 자본주의 세속적 논리에 의해 훼손되어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과녁』에서 검사인 석주호가 활쏘기를 배우는 것은 오로지 지역 유지들과의 대결을 통해 바둑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게 궁도의 도는 안중에 없었다. 석주호의 가치관은 세속적이며 이는 궁도의 법도와 상충된다. 결국 이러한 가치관의 상충은 세속적 논리에 의해 궁도의 법도가 훼손될 뿐 아니라 북호정의 궁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 그들이 지켜왔던 궁도의 법도가 한갓 기이한 구경거리로 전락하면서 이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고 결국 ‘아름다운 것은 충분히 자랑되어야 한다’는 석주호의 논리는 모든 것을 상품화 물질화하는 자본주의의 속물성의 또다른 표현인 것이다. 결국 숨어서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던 궁사 가족의 궁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구경거리의 하나로 전락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소외되고 만다.

『매잡이』의 매잡이 또한 마을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소외된다. 마을사람들은 물이꾼보다 장터에 내다 팔 물건을 만들거나 화투 등 근대 자본주의 적 오락에 빠져들 뿐이다. 매잡이는 결국 매사냥을 포기하고 매와 더불어 굶어죽는다.

결국 근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들 기예는 주류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면서 소멸하고 만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소외되는 구직 청년의 사례와 유사한 소외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자기세계의 확립과 소외

김승옥은 글쓰기의 중심을 자아 의식에 두는 창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그들 세대가 겪었던 희망과 절망, 가능성과 좌절, 자부심과 패배 의식을 동시에 체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19세대인 김승옥은 현실 속에서 겪은 좌절을 문학적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념이나 현실을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이는 대신 개별 자아의 내면 세계를 절대화하는 창작 방법을 사용하였다. 1960년대 한국 사회는 산업화로 이행하는 단초를 보여준 시기로 분업화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파편화되고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산업화 초기에 한국 사회는 공동체의 해체 조짐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이

15) 이청준, 『줄』, 같은 책, pp.46-47.

익 사회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도시적 삶의 양태라 할 수 있다. 김승옥의 소설은 이러한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김승옥의 소설은 도시적 삶의 양식 속에서 소외되는 개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의 방식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다. 공동체적 가치관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 해결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더욱 절망적이다.

김승옥은 도시로 대표되는 근대적 삶의 양식과 도시에 입성했지만 도시적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삶의 양식을 보여준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 「역사(力士)」, 「차나 한잔」, 「들놀이」 등이다.

「역사(力士)」는 양옥집으로 대표되는 도시적 삶의 양식과 창신동의 판잣집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변두리 인생과의 대비를 보여준다. 하얀 양옥집의 삶은 모든 생활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침 기상시간, 출근 및 등교, 가사일, 저녁 식사, 취침 시간 등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이 집 식구들의 의무사항인 것이다. 심지어 며느리가 피아노를 치는 시간도 일정한 시간에 정해져 있다. 창신동의 판잣집에서 하숙을 하던 ‘나’는 양옥집으로 이사 오지만 이 집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저녁 식사 후 모두 공부 및 독서하는 시간에 기타를 치다가 할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고 자신이 기타를 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로 할머니와 며느리의 재봉틀 시간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게된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에 기타를 치지 않는다. 기타는 흥이 나야 치는 것이지 정해진 시간에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옥집의 규칙적 생활은 할아버지의 가풍 세우기에서 비롯된다. 그는 6.25가 남긴 산물이 가정의 파괴라면서 이는 가풍의 확립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 가풍이 규칙적 생활양식을 지키는 것에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가풍에서 권태와 혐오증을 느낄 뿐이다.

양옥집의 규칙적 생활은 근대의 시간 체계를 상징한다. 근대의 삶의 양상은 시간의 준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학교의 등하교 및 수업 시간은 항상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각 직장의 일과도 마찬가지로 규칙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중심의 생활은 근대 과학과 이성 중심의 학문의 밑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시간의 준수는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의 생활 양식은 근대의 시간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늦잠을 자거나, 기분에 따라 기타를 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근대의 시간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양옥집의 생활 양식에 답답함을 느끼고 창신동 하숙집을 생각한다. 그 중에서 막노동을 하는 서씨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서씨는 대대로 역사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쓰지 못한다기보다 쓸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의 힘은 노동판에서 남보다 일당을 더 받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는 조상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를 거부하고 남몰래 밤에 동대문 축대의 돌을 옮겨 놓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유지한다. 중세의 경우 장수가 되어 국가에 공을 세웠을 능력이지만 근대적 삶의 양식 속에는 그의 능력은 한갓 완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양옥집의 가풍에서 권태와 혐오증을 느낀 것과 달리 서씨의 가풍을 이으려는 이러한 행동에서 그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서 깊이 이를 느낀다. 결국 ‘나’는 양옥집의 규칙적 생활에 반역을 꾀하고 마실 물에 몰래 흥분제를

타지만 아무 성과 없이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만다.

도시적 삶이 단순히 속악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기만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적 삶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악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편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체제로 이루어진 세상이 속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에 편입해야 한다는 것에서 근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 체제는 속악할 뿐 아니라 이미 강고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 체제에 끼어 들어가기조차 힘들다는 점에서 또 한번의 비극을 겪게 된다. 「차나 한잔」, 「들놀이」 등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구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차나 한잔」의 만화는 신문 연재 만화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해고당한다. 신문사 측에서는 직접 해고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며칠동안 계속하여 만화가의 만화를 신문에 실어주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연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이 개인을 쫓아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조직에서 빠져나갔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도시 생활에서 어법은 많은 숨김과 속임을 포함한다. ‘차나 한잔 하자’는 문화부장의 말은 곧 ‘당신은 해고’라는 말의 우회적 표현이기도 하다.

“차나 한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말입니다.”¹⁶⁾

‘차나 한잔’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할 때 던지는 화두에 불과하다. 이 말 속에서 개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상하기도 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차나 한잔’이라는 말 속에 개인은 거역할 수 없는 조직의 통보를 받는 것이다. 이는 거대한 조직이 개인에게 가하는 무형의 폭력이며 체제는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화가 는 신문사에서 해고 아닌 해고가 된 이후 신문에 만화가 연재되지 않는 또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을 찾아가 만화연재를 부탁한다. 하지만 이 신문사의 문화부장은 농담하기를 좋아하여 거절의 뜻까지 농담으로 전한다. 결국 체제 또는 조직 속의 개인은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며 이는 개인의 힘으로 거역할 수 없다는 까닭으로 더욱 비극적이라 할 수 있다.

「들놀이」는 권위적인 사장의 들놀이 제안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조그만 회사에서 들놀이 초대장을 받지 못한 말단 회사원 맹상진의 고민을 보여준다. 초대장을 받지 못한 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었을 때 당사자로서 그 모임에 가야하는 것인지 안가도 되는지, 아니면 안가야 하는 것인지를 문제가 사회적 약자로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빼돌림 당한다는 것처럼 사내 새끼들의 사회 속에서, 쓰러린 것은 없다. 결과로서 오는 해악이 전연 없다고 할지라도 빼돌림당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써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배당된 그리고 그것은 마치 고추 하나씩을 배당받았듯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배당된 깊고 어두운 구멍 속으로 떨어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¹⁷⁾

16) 김승옥, 「차나 한잔」, 『김승옥 소설전집 1』(문학동네, 1995), p.199.

17) 김승옥, 「들놀이」, 같은 책, p. 236.

맹상진의 고민은 단순히 들놀이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 체계에서 버림받아 소외 당했다는 괴로움에 있다.

들놀이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맹상진은 이 사실을 직장 동료 이군에게 말하고 조언을 구한다. 이군은 맹상진과 함께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야유회에 불참하기로 하고 야유회가 열리는 일요일에 같이 만나기로 한다. 하지만 이들은 들놀이를 가지 않고 바둑을 두면서도 그들이 불참한 들놀이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맹군은 이군의 침묵이 아무래도 겁이 났고 점점 이군이 마땅하지 못했다. 아마 자기 아내와 딸다툼이라도 한 모양인데 집안 싸움을 친구에게까지 옮길 이유는 없지 않은가. 딱, 딱, 딱, 딱, 딱..... 맹군이 다섯 점을 이긴 첫판을 끝내고 둘째 판을 두고 있을 때 이군의 침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맹군은 짐작할 수 있었다.

“회사 사람들, 지금쯤 우이동에 가 있겠지?”

라고 이군이 말을 꺼냈던 것이다.

“가 있겠지. 사장의 훈화 같은 연설이 한바탕 있었겠고....”

아아, 이군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부터 자기가 이군의 침묵을 겁내고 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¹⁸⁾

회사라는 조직이나 체제의 횡포에 두려워하면서도 그 횡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들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다. 다만 그곳에 편입하여 안주하고 싶어하지만 그 기회조차도 이들에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들놀이 아아 귀찮은 들놀이.....’라는 생각만 할 뿐이다.

도시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좌절과 소외를 경험한 이들은 결국 자기 세계를 통해 이를 타개해 가려 하지만 결국 고립된 개인의 소외를 경험할 뿐이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인물들처럼 소외 현상을 즐기거나 피할 뿐이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인물들은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기 세계 속으로 도피하려한다. 결국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세계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소외를 경험한다. 말장난에 가까운 인물들의 무의미한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소통의 부재 상황과 개인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 속에 고립되는 소외와 고독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심각한 얘기를 좋아하는 이 친구를 골려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취한 사람의 특권을 맛보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다.

“평화 시장 앞에서 줄지어 선 가로등 중에서 동쪽으로부터 여덟 번째 등은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좀 어리둥절해 하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얘기를 계속했다. “..... 그리고 화신 백화점 육 층의 창들 중에서는 그 중 세 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내가 어리둥절해질 사태가 벌어졌다. 안의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8) 김승옥, 『들놀이』, 같은 책, pp. 239-240.

그가 빠른 말씨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서른두 명 있는데 그 중 여자가 열일곱 명이고 어린애는 다섯 명, 젊은이는 스물한 명, 노인이 여섯 명입니다.”

“그건 언제 일이지요?”

“오늘 저녁 일곱 시 십오 분 현재입니다.”

“아” 하고 나는 잠깐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그 반작용인 듯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털어놓기 시작했다.

(.....)

“그건 얘기가 됩니다. 그 사실은 완전히 김 형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말투는 점점 서로를 존중해 가고 있었다. “나는 ……”하고 우리는 동시에 말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럴 때는 번갈아서 서로 양보했다.¹⁹⁾

‘나’와 ‘안’이 나누는 대화의 중심 화제는 서로 상대방이 모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대화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완전한 개인의 소유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는 대화의 방법을 통해 자기세계로 고립되는 소외의 방법일 뿐이다. 이들에게 대화는 의사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소외를 즐기는 도구에 불과하다.

아내가 사망한 월부 책장사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관에서 각자 방을 잡기로 한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리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놓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하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

19)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같은 책, pp. 207-208.

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사였다.

“예?” 나는 잠이 깨듯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²⁰⁾

월부 책장사의 자살을 방치함으로서 이들 인물들은 타인의 구원이 전제되지 않은 자기 자신만의 구원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혼자 놓아둔 ‘안’에게서 개인주의의 극단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안’의 생각은 근대의 이성중심주의 사상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중심주의, 개인중심주의가 개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을 이 작품은 보여주는 것이다. 월부 책장사의 자살은 개인이 자기 세계로 빠져들어 스스로 소외를 선택할 때 사회의 건강성은 심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승옥은 산업화된 현실 속에서 개인이 소외되지만 결국에는 개인 스스로 자기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스스로 소외를 선택하는 소외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의 작품들을 통해 소외의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최인훈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정체성의 괴리 또는 상실로 인해 소외를 경험한다. 이들에게 정치적 정체성의 상실은 정신적 망명을 의미할 정도로 소외감은 크게 나타난다. 이청준은 자본주의로 이행해 가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조직의 체계에 편입을 하든지 편입하지 못하든

20)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같은 책, pp.222-224.

지 간에 인간은 조직의 일원으로 소외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전통적 기예가 소외되고 소멸되는 양상도 보여준다. 김승옥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조직 사회에서 소외되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소외의 양상이 개인들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곳에 빠져 들어가 스스로 고립됨으로써 소외 상황을 즐긴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소외의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정된 작가와 한정된 작품으로 인해 다양한 소외 양상을 검토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4. 참고문헌 목록

- 구재진, 『1960년대 한국 소설의 주체와 담론』, 삼지원, 2002.
- 권성우, 「최인훈의 『회색인』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어문학』 74, 한국어문학회, 2001.
- 권오현, 『1960년대 한국소설 연구』, 문예미학사, 2000.
- 김명석, 「김승옥 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0.
- 김민수, 「1960년대 소설의 미적 근대성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1999.
- 김인호,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00.
- 김인환, 「모순의 인식과 대응방식 : 최인훈론」, 『문예중앙』, 1982, 봄.
- 김중수, 「최인훈 소설의 관념표출방법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8.
- 김종희, 「관념과 문학, 그 끈고한 지적 편력」, 『작가세계』, 1990, 봄.
- 김주연, 「한국 비극소설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2001.
- 김주연, 「소외와 현대문학」, 『문학사상』, 1976. 4.
- 김치수, 「지식인의 망명 : 최인훈의 『회색인』, 『서유기』를 중심으로」, 김병익, 김주연, 김치수, 김현 편, 『현대 한국문학의이론』, 민음사, 1972.
- 김태빈, 「김승옥 소설의 소외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2.
-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6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3.
- 민족문학사 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 박진영, 「김승옥 소설의 주체구성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0.
- 심현정, 「김승옥 소설 연구-현실과 내적 자아의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1998.
- 양윤모, 「최인훈 소설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9.
- 양윤모, 『정체성 탐구와 소설의 형식』, 박이정, 2003.
- 양윤모, 「근대화와 전통적 기예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5, 2002.
- 유미영, 「김승옥 소설 인물의 주체 형성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1.
-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김승옥론」, 『유종호 전집 1.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재수
록)
- 이남호, 「냉전상황에 대한 지적 대응 : 최인훈의 소설」, 최인훈, 『웃음소리』, 책세상, 1989.
- 이상섭, 「이청준의 의식소설」, 『언어와 상상』, 문학과 지성사, 1984.
- 이승준, 「김승옥론」, 고려대 석사논문, 1996.
-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2.
- 이호규, 「1960년대 소설의 주체생산 연구 - 이호철, 최인훈, 김승옥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1999.
- 정문길 편, 『소외』, 문학과지성사, 1984.
- _____, 『소외론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8.
- 파펜하임, F., 『현대인의 소외,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4.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소외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 미 영(충북대)

양윤모 선생님의 발표는 1960년대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의 소설을 대상으로, 5.16 군사 정권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다양한 소외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60년대 소설의 소외 양상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정치적 정체성의 상실로 인한 소외(최인훈의 《회색인》), 자본주의 체제의 진입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외(이청준의 <굴레>, <줄>, <과녁>, <매잡이>), 체제의 강고함으로 인해 자기세계로 도피해가는 소외(김승옥의 <역사(力士)>, <차나 한잔>, <들놀이>, <서울 1964년 겨울>)가 그것입니다. 발표 잘 들었구요, 선생님의 말씀을 좀더 듣고 싶은 문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 <회색인>에서 독고준의 태도가 정치적 소외? or 정치적 선택?

p.4의 첫 문단에서 선생님께서는 독고준이나 그의 가족들이 “스스로 소외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독고준의 아버지와 현호성(누나의 약혼자)이 월남하자, 나머지 가족들은 가장을 상실한 채 북한 공산 정권하에서 남한의 방송을 몰래 듣는 ‘망명가족’의 처지가 되는 대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고준을 비롯한 남은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소외가 아니라, 가장의 월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p.6의 둘째 단락에서 선생님께서는 “독고준이… 혁명파도 거리를 둔다. 독고준은 ……김학의 혁명이론을 거부하면서 양쪽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외를 넘어 고립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십니다. 그러나 이 대목도 자세히 보면, 독고준이 새로운 이념의 제시없이 단순히 정권만 교체되는 혁명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고준이 혁명이나 이데올로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념의 제시가 없는 혁명과, 개인을 억압하는 집단적 장치로 타락한 남과 북의 이념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독고준은 스스로 이념이나 혁명으로부터 소외나 고립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인훈의 <회색인>은 남한의 반공이데올로기나 북한의 공산체제 둘 다 정치적으로 성숙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이념적으로 동조할 수 없어 회색인을 자처하는 지식인의 선택을 그리고 있습니다. 독고준은 남과 북의 이념이 개인의 자유와 모순되는 또다른 체제화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의미하는 지성을 선택합니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독고준이 김순임이 아니라, 이유정을 선택하는 것도 이유정에게서 지적 동류의식을 느꼈기 때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독고준의 이러한 선택은 그 자체가 양쪽 체제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로서, 일종의 제3의 정치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현실 정치 체제(그것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혹은 특정 정권이든)와 정치적 지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으므로 그들의 제3의 선택도 일종의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외는 그 대상이 이념이든 집단이든 그것에의 지향이 내심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나, 혹은 그것과 다른 가치의 선택은 소외로 볼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2. 세 작가가 형상화한 ‘소외’의 변별점은? 그것들과 60년대 현실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이청준의 <굴레>는 ‘X도 출신’과 ‘편모슬하’라는 조건이 취직에 있어 굴레로 작용하는 1960년대의 사회상을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줄>, <과녁> <매잡이>는 전통적인 기예가 주류예술로부터 밀려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예능술이 한낱 오락거리나 돈벌이로 전락하는 현실과,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예능인의 처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청준의 작품들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가 환금적인 가치지상주의 즉, 천민자본주의의 양상을 드러내는 한편, 합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불합리한 요소(‘X도 출신’과 ‘편모슬하’라는 것을 사유로 젊은이를 취업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를 지닌 사실을 보여줍니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은 속악한 자본주의의 모든 욕망의 집결지인 60년대 서울에서 무의미, 소외, 소통단절 등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방황과,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런 방황이 그나마 살아있음에 대한 미약한 증거이기도 그 쿼터리즘(방황)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청준의 작품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자본주의의 천민화된 양상과 그 가운데 일부계층의 소외를 원거리에서 그리고 있다면, 김승옥은 개인과 개인 간의 단절과 소외를 근거리에서 그리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한편 최인훈은 이데올로기의 억압성과 지성적 사유의 자유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세 작가는 문제의식이나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분명 다릅니다. 세 작가의 상기작품들의 주제의식을 포괄하는 개념(concept)으로 ‘소외’를 설정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분석과 작가마다의 편차에 대한 해석 부분은 좀 피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서두에서 196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소외문제는 4.19혁명의 성과를 일시에 부정해버린 5·16 군사정권의 창출로 시민들이 입은 상처와, 과도한 경제개발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 도시 빈민과 노동자의 문제 등이 개인의 정체성의 혼란과 삶의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의 작품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들이 특히 196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컨대 최인훈의 《회색인》이 ‘정치적 정체성의 상실로 인한 소외’라면 이것이 5·16 군사정권의 경제개발로 인한 변화된 삶의 양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세 작가가 형상화하고 있는 각각의 소외가 그 원인과 형상화 방식, 그리고 그것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인식 등의 차원에서 변별되는 지점들과, 그러한 소외들이 60년대 현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서 좀 정리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3. 60년대 소설의 소외는 50년대, 70년대 소설의 소외와 어떻게 다른가?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의 작품들에 드러난 소외의 양상들이 60년대의 것이라면, 50년대나 7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소외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보충설명을 기대합니다.